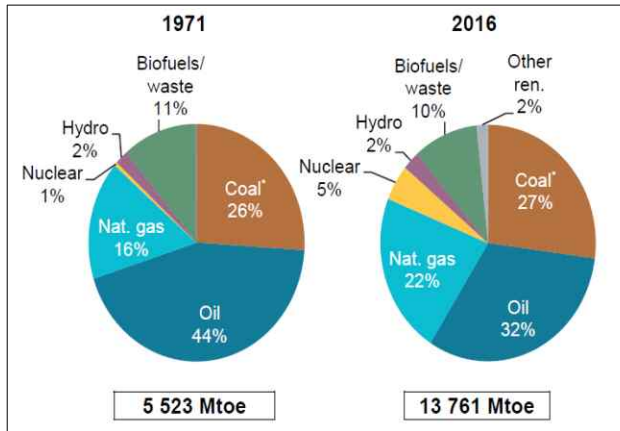


◆ IEA는 OECD 국가를 포함한 150개 국가의 에너지원별·부문별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현황 등 주요 에너지 경제 지표를 분석·비교한 World Energy Balance 2018 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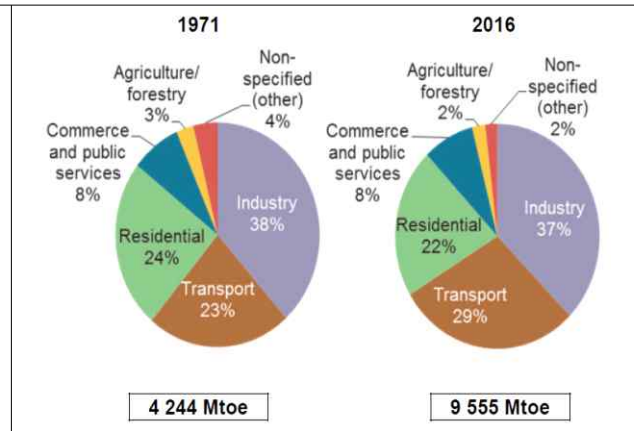
□ 전 세계 에너지 공급·소비 동향(1971~2016년)

- 1971~2016년 동안 전 세계 1차에너지 공급량은 약 2.5배 증가(5,523 → 13,761 Mtoe)하였고 최종에너지 소비도 2.25배가 증가(4,244 → 9,555 Mtoe)
- (1차에너지 공급) 1971년 대비 석유의 비중(44% → 32%)이 감소한 반면, 천연가스(16% → 22%), 태양광 및 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(0% → 2%)의 비중은 증가
- (최종에너지 소비)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의 경우 산업부문의 비중이 소폭 감소하였고(-1%) 수송부문의 비중은 29% 까지 증가

< 에너지원별 세계 1차에너지 공급량 >



< 부문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량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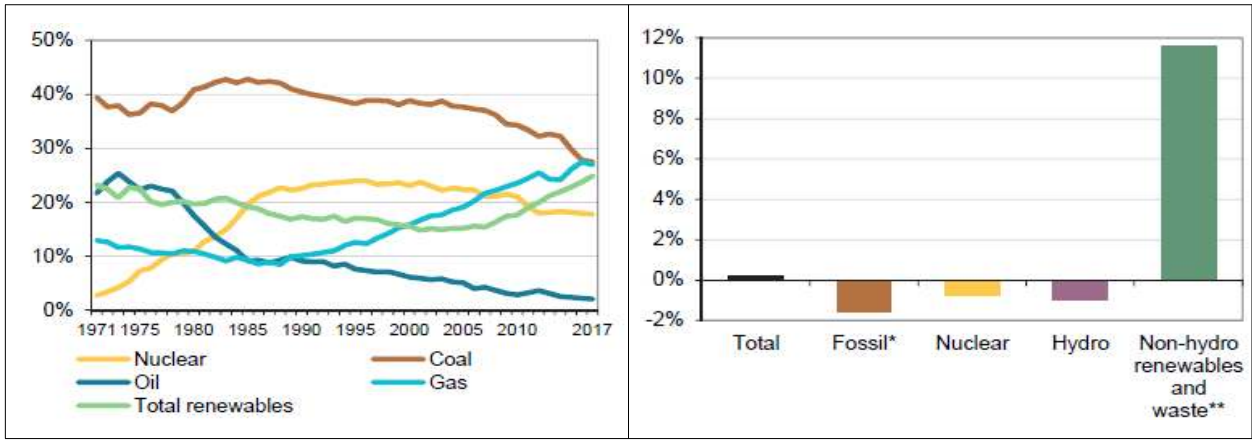


□ 최근 OECD 1차에너지 공급 현황

- '17p년(잠정치) 기준 OECD 국가의 1차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대비 약 0.8% 증가한 5,301Mtoe이며 석탄은 1.3% 감소, 석유는 0.5% 증가 추세를 보임
-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의 경우 화석연료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지속됨
- '17p년 기준 전년대비 화석연료 및 원자력 발전비중은 각각 1.5%, 0.7%씩 감소하였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1.6% 증가함

<연도별 OECD 에너지원별 발전비중>

<'17년 OECD 원별 발전비중 증감율('16년 대비)>



* (화석연료) 석탄, 이탄, 석유, 천연가스 포함

** (수력발전 제외 재생에너지) 태양광, 풍력, 바이오연료, 지열, 폐기물에너지

□ 우리나라 에너지부문 국제 순위

- '16년 1차에너지 공급량은 전년대비 약 9Mtoe 증가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2%에 해당
- 석유는 약 9Mtoe 증가한 123Mtoe를, 전력은 약 10Mtoe 증가한 544toe를 소비하여 전년대비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하여 8위를 기록

<2016년도 전세계 에너지 경제지표 비교>

순위	1차에너지공급 (백만toe)	석유소비 (백만톤)	전력소비 (TWh)	1인당 에너지소비 (toe/인)	1인당 전력소비 (kWh/인)
1	중국 2,973	미국 865	중국 5,946	카타르 16.46	아이슬란드 53,913
2	미국 2,167	중국 574	미국 4,148	아이슬란드 15.78	노르웨이 23,692
3	인도 862	인도 217	인도 1,216	트리니다드 토바고 13.37	바레인 19,514
4	러시아 732	일본 184	일본 1,012	퀴르소 10.98	카타르 15,477
5	일본 426	사우디아라비아 167	러시아 969	바레인 10.00	핀란드 15,468
6	독일 310	브라질 140	독일 573	쿠웨이트 8.84	쿠웨이트 15,279
7	브라질 285	한국 123	한국 544	아랍에미리트 8.01	캐나다 14,844
8	한국 282	독일 112	캐나다 538	캐나다 7.72	룩셈부르크 14,274
9	캐나다 280	캐나다 102	브라질 520	브루나이 7.00	스웨덴 13,756
10	이란 248	멕시코 86	프랑스 478	한국(15위) 5.51	한국(13위) 10,618
세계	13,761	4,409	23,107	1.85	3,110

* 출처: World Energy Balances (IEA, 2018),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(BP, 2018)

<출처>

1. 수요관리 부문

- 해외이슈 < IEA, World Energy Balances >
 - World Energy Balances 2018 (IEA, 2018. 08.)
 -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(BP, 2018)